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 관련 보호요인*

김 동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집단따돌림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그가 속한 집단
에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소외시켜 역할 수행
을 방해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이다(Olweus, 1994). 측정 도구 및 대
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상 학생의 약 7-17%까지
피해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따돌림의 방법이나
내용도 다양화, 난폭화 되고 있어 집단따돌림의 심각성
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Kim, Leventhal, Koh,
Hubbard, & Boyce, 2006; Park & Koh, 2005).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심리, 사회,
인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으로 학교
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이 시기에 큰 위기로
작용하여 자아정체감 발달, 또래와의 사회화 과정 등
발달 과업 성취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후 성인기에까지
정신·신체건강, 사회 적응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Allison, Roeger, & Reinfeld-Kirkman, 2009).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의 수치심, 두려움, 자아

존중감 저하, 우울, 불안, 학업 저하, 신체화 증상 경
험 등의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
고 있다(Nansel, Craig, Overpeck, Saluja, & Ruan,
2004). 그러므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자들의 긍정적 적응 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
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집단따돌림 피해
자의 학교적응은 문제가 생긴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
하고 극복하여 추후 적응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라는 문제와 위기를 경험한 학생들
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고 극복하는가에 따라 위
와 같은 여러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
로 이겨내어 성숙된 발달 과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파악하여 이 보호요인들을 중심으
로 집단따돌림이라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중
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는 개인 특
성인 내적요인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있다(Mandleco & Peery, 2000). 대표적인 개인 보
호요소로 연구되어 온 것은 자아존중감(Jung & Ah,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2R1A1A2006819).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dkim@sungshin.ac.kr)

투고일: 2014년 11월 6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Dong H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eoul, Korea

76ga-gil 56, Dobong-ro, Kangbuk-gu, Seoul, Korea

Tel: 82-2-920-7727 Fax: 82-2-920-2092 E-mail: dhkim@sungshin.ac.kr

2006), 대처 능력(Choi, 2013), 대인관계 기술(Cheon, 2010) 등이 있는데 극복력(resilience)은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인이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여 위기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심리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Masten, 2004). Kim(2002)은 극복력을 가진 아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감과 낙천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책임감있고 계획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해결하며, 자원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대처하며, 가족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사교적이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극복력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이해, 대처 양상, 대인 관계에서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가진 강점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도 잘 적응하게 되고 나아가 위기상황 이전의 수준보다 더 나은 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Masten, 2004).

내적 요인 외에 집단따돌림과 같은 위기상황에 보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외적 보호 요인으로는 가족기능, 가족지지, 양육행동, 학교환경,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이 연구되어 왔다(Kim et al., 2010; Yoo, Lee, & Lee, 2013). 이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전반적 심리사회적 성장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Kim et al., 2010). 부모의 애정과 공감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Kim & Jung, 2012).

교사와 친구들의 영향도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에 또 다른 중요한 외적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는 전체 학생들에게 반영되어 집단따돌림 발생 역동과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yraktar, 2012). 또한 친구관계는 집단따돌림의 원인, 예방 등 집단따돌림의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 연구되어온 변수로 안정감이나 친밀감이 높고 도움을 주는 긍정적 친구 관계나 지지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Kwon, 2014).

집단따돌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증가하여 중학교 때

정점을 이루고 고등학교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Yoon, 2007) 중학생 대상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영향과 중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중학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내적 보호요인인 극복력과 외적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양육행동, 친구관계, 교사의 따돌림 관련 태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따돌림 이전의 상태의 긍정적 적응 상태를 보일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적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영향있는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중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 관련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 극복력, 지각된 양육행동과 친구 관계, 교사의 따돌림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따른 일반적 특성, 극복력, 양육행동, 친구관계, 교사의 따돌림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자의 극복력, 양육행동, 친구관계, 교사의 따돌림 관련 태도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자가 임의 표출한 서울 지역 소재의 1개의 중학교 각 학년 9개 반 총 27개 반의 학생 862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불완전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37명을 제외한 825명(95.7%) 중 Seo (2008)의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설문지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114명(13.8%)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집단따돌림에서 역할

집단따돌림에서의 역할은 Seo(2008)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과 Kaukiainen (1996)의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집단따돌림에서 참여 역할을 가해자, 피해자, 가해동조자, 방관자, 피해아 방어자의 5개로 나누어 구분하는 도구이다. 가해 및 피해자의 영역 문항은 7문항으로 '전혀 없다'에서 '11회 이상'까지의 0-4점 척도로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및 피해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해동조자, 방관자, 피해아 방어자의 각 5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관, 가해자 동조, 피해자 방어 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 역할의 점수는 표준화하여(평균=0, 표준편차=1) 각 역할의 표준화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어떤 다른 역할의 점수보다 높을 때 특정 역할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의 피해자 역할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생활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환경 적응, 학교교사 적응으로 구성된 Kim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1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 극복력

극복력 측정은 개인내적 특성, 대처양상 특성, 대인관계 특성의 하부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Kim (2002)의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를 일반 청소년들 대

상으로 수정한 Lee (200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다(1점)'의 4점 척도이며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Lee (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양육행동

대상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Park (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를 Jung (200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은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자녀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 행동이 포함된다.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은 자녀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위들을 말한다.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 굴복형 허용과 무책임, 무관심형 방임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아주 다르다' 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 4점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해 각 문항이 측정하는 양육 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g (200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하부요인 별로 .7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91이었다.

5)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태도

교사가 따돌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는지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도구로 Lee (2003)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아주 다르다' 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 4점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6) 친구관계

Kim (1992)이 개발한 대인관계 검사 중 친구부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Jun (2003)이 중학생의 상황과 이해수준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각하고 있는 친한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와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상당히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Jun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7)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구 마지막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학년, 성별, 부모나이,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구조, 성적과 경제 상태를 자가보고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성적과 경제 상태는 상, 중, 하로 나누어 본인이 인지한 성적과 경제 상태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진행 전 본 연구의 연구계획에 대해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SWUIRB 2012-020). 서울시 소재 일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먼저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각 학년 당 9개 반, 총 27개 반을 대상의 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시작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 설문 참여의 자유,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작성 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원은 2인으로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연구실시 전에 설문지의 내용을 본 연구자와 함께 검토하여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본 조사 실시 전 설문 진행시 필요한 의사 진행과 배부 및 수거 방법에 대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질문에 대해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PASW software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주요 변수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학교적응과 각 보호요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지역 소재의 1개의 중학교 862명 중 집단따돌림 참여자 역할 설문지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총 114명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44명(38.6%), 2학년 40명(35.1%), 3학년 30명(26.3%)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62명(54.4%)으로 남학생이 52명(45.6%)보다 많았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106명(9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상자의 아버지의 연령분포는 39~59세로 평균 46.22±3.43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졸업이상이 91명(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38~56세로 평균 44.13±3.23세이었고 어머니의 학력도 대학졸업이상이 73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인식된 학업성취정도는 보통이 51명(44.7%)이고 높다가 39명(34.2%)의 순이었고 인식된 경제정도는 보통이 85명(74.6%)이고 낮다가 15명(13.2%)이었다(Table 1).

2. 극복력, 양육행동, 친구관계, 교사태도 점수

연구대상자의 학교적응 점수는 평균 107.8±18.74

점으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156점으로 나타났고 극복력은 평균 85.42±20.82점으로 48점에서 130점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이 평균 24.80±6.05, 거부-제재는 평균 25.80±5.39, 허용-방임은 평균 22.60±5.74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관계는 평균 44.54±10.12점으로 14점에서 68점의 분포를 보였고, 교사의 집단따돌림 대한 태도는 평균 18.80±4.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학년($F=.597, p=.552$), 성별($t=.165, p=.990$), 아버지의 학력($F=.823, p=.480$),

어머니 학력($F=.399, p=.649$), 가족 구조($t=.254, p=.804$), 인지된 성적($F=.332, p=.718$), 인지된 경제 상태($F=.410, p=.612$) 모두 학교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주요변수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나이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극복력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5, p<.01$). 학교적응과 부모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는 허용-방임을 제외하고 온정-수용($r=.482, p<.0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제재($r=-.213, p<.01$)에서는 음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4)

Variable	Categories	N(%)	Mean(yr)±SD	Range(yr)
Grade	First	44(38.6)		
	Second	40(35.1)		
	Third	30(26.3)		
Gender	Male	52(45.6)		
	Female	62(54.4)		
Age of father			46.22±3.43	39-59
Age of mother			44.13±3.23	38-56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2(1.8)		
	High school	21(18.4)		
	College or more	91(79.8)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2(1.8)		
	High school	39(34.2)		
	College or more	73(64.0)		
Family structure	Extended	8(7.0)		
	Nuclear	106(93.0)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24(21.1)		
	Middle	51(44.7)		
	High	39(34.2)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15(13.2)		
	Middle	85(74.6)		
	High	14(12.2)		

Table 2. Resilience, Parenting Behavior, School Life Score of Participants

(N=114)

Variable	Mean±SD	Range
School adjustment	107.75±18.74	15-156
Resilience	85.42±20.82	48-130
Parenting		
Warmth- acceptance	24.80±6.05	10-40
Rejection-restriction	25.80±5.39	10-40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22.60±5.74	10-37
Relationship of friends	44.54±10.12	14-68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18.80±4.40	3-28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적응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태도($r=.381, p<.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학교적응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극복력($\beta=.247, p=.022$), 부모 양육행동의 온정-수용($\beta=.302, p=.000$),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태도($\beta=.285, p=.006$)가 37%의 설명력으로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5. 학교적응과 관련된 보호요인 분석

Table 3.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4)

Variable	Categories	Mean(yr) \pm SD	t or F	p
Grade	First	106.95 \pm 24.78	.597	.552
	Second	106.64 \pm 18.71		
	Third	112.00 \pm 11.10		
Gender	Male	107.34 \pm 18.45	.165	.990
	Female	107.92 \pm 19.40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99.33 \pm 33.65	.823	.480
	High school	105.45 \pm 17.59		
	College or more	109.22 \pm 18.25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99.33 \pm 33.65	.399	.649
	High school	107.40 \pm 21.38		
	College or more	108.64 \pm 16.87		
Family structure	Extended	108.71 \pm 15.40	.254	.804
	Nuclear	107.58 \pm 19.35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103.90 \pm 18.36	.332	.718
	Middle	105.67 \pm 22.61		
	High	108.33 \pm 18.54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103.37 \pm 17.05	.410	.612
	Middle	108.49 \pm 18.49		
	High	106.56 \pm 22.14		

* $p<.05$, ** $p<.01$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Age of father	Age of mother	Resilience	Parenting			Relationship of friends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Warmth-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School Adjustment	.180 (.070)	.018 (.238)	.355** (.001)	.482*** ($<.001$)	-.213* (.023)	-.151 (.079)	.138 (.199)	.381*** ($<.001$)

Table 5. Relate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N=114)

Variable	B	SE	β	t	p
Resilience	.384	.265	.247	.364	.022*
Parenting					
Warmth-acceptance	.286	.076	.302	.315	.000***
Rejection-restriction	-.553	.338	-.164	-.189	.133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181	.068	.285	2.657	.006**
		F=6.215	$p<.001$		
		R ² = .40	Adj R-sq= .37		

* $p<.05$, ** $p<.01$, *** $p<.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보호요인으로는 극복력, 양육행동 중에서는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태도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통제한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제외한 극복력, 온정-수용 양육행동, 교사의 집단따돌림이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극복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이고 친근한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하여 지지관계를 형성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동적 역량이다(Masten, 2004). 따라서 극복력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어(Masten, 2004) 집단따돌림이라는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극복력이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관련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복력이 학교적응의 유의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기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 Choi, 2007).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극복력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Lee & Choi, 2007).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집단따돌림이라는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극복력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 연구 대상인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극복력 점수는 평균 85.4점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된 Lee (2003) 연구의 93.9점보다 낮았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우 일반 학생들보다 극복력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Jung & Kim, 201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문제 대처방법이나 대인관계 능력 등이 부족한 극복력의 문제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도 나타나(Jung & Kim, 2013) 집단따돌림 피해자에게

극복력 부족의 문제는 피해자 이해나 중재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에게 학교적응에 중요한 개인의 보호요인인 극복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극복력을 증진시키는 중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전반적 성장 발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성, 협동성, 자발성, 독립성, 책임감 형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Kim & Jung, 2012).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다르게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해야 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Jang, 2002).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육행동 중 애정-수용의 긍정적인 양육행동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애정-수용의 양육행동이 요인 중 회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 학교적응에 가장 큰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 같은 결과이다(Kim, 2008). 부모의 안정적인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자신감과 안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성취적이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잘하게 한다. 또한 안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막아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Jung, 2012). 그러므로 추후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을 중재 개발 시에는 반드시 부모 대상의 올바른 양육행동, 긍정적 양육행동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서의 또래와 교사와 역할은 그 과정과 추후 적응에까지 그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따돌림 지도 시에 교사들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Bayraktar, 2012) 교사들의 따돌림에 대한

태도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집단따돌림 가담학생과 상황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해결뿐 아니라 학급 분위기 전체까지 영향을 미쳐 각 학생들의 기존 집단따돌림 역할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추후 집단따돌림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교사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치 등의 태도는 가해행동에 제재가 없어 가해행동을 강화하게 되고 피해학생들과 방관 학생들에게까지 집단따돌림에 대한 무력감, 절망감을 심어주게 되어 집단따돌림을 점점 더 지속, 악화시키게 된다(Bayraktar, 2012).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의 중재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태도와 지도는 집단따돌림의 해결과 피해자 적응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들을 위한 지원은 교사들의 시간부족과 사후 처리에만 초점을 둔 단편적, 비전문화된 매뉴얼과 전문적지지 체계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Kim, 2013; Lee, Im, Lee, & Oh, 2009). 교사들이 학생 전체에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따돌림 발생 후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교사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 자원 연계, 업무 시간 조정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Lim & Lee, 2007). 이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자로 친구와의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친구에게 받는 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생긴 결과라고 사료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 점수는 44.54로 같은 도구로 일반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측정한 Lee (2003)의 48.53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친구관계는 사회적 압력 또는 지지로 작용하여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Kwon, 2004) 집단따돌림의 전반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친구 관계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잘 맺을 수

있도록 또래지지 프로그램, 사회기술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극복력, 양육행동, 교우 관계, 교사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이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극복력과 부모의 양육행동,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태도가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임의 표출한 일개 중학교 대상의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횡단적 연구 설계로 각 변수간의 영향이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성격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등 본 연구에서 통제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생기는 잠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학교적응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을 위한 중재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극복력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교사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극복력을 높이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사들이 집단따돌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증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lison, S., Roeger, L., & Reinfeld-Kirkman, N. (2009). Does school bullying affect adult health? Population survey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ast victimiza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 Psychiatry*, 43(12), 1163-1170. <http://dx.doi.org/10.3109/00048670903270399>
- Bayraker, F. (2012).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North Cyprus and Turkey: testing a multifactor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6), 1040-1065. <http://dx.doi.org/10.1177/0886260511424502>
- Cheon, K. M. (2010). The influence of physical self-percep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bullying experience of adolescence.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14(1), 47-65
- Choi, M. K. (2013).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health status and stress cop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30(3), 25-34.
- Jang, H. S. (2002). Attachments to par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1), 101-121.
- Jun, S. J. (2003). *A study on the traits of alienated students and non-alienated students: the case of self-concept and soci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ung, S. Y. (200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children's friend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ung W. C., & Ah, Y. A.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bullying and bullied experi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2), 89-115.
- Jung, Y. J., & Kim, Y. H. (2013). Structural Analysis of Bullying Victims' Maintenance and Resilience Factors. *Family and Counseling*, 3(1), 15-23.
- Kim, D. H. (2013). Content analysis on the teachers' intervention experiences on bullying. *Journal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1(4), 307-316.
- Kim, D. H. (2002).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resilience in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D. H., Kim, Y. S., Koh, Y. J., & Leventhal, B. L.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2), 89-96.
- Kim, J. K., & Lee K. H. (2008). Relationships between combinational pattern of parenting styl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9(3), 1183-1200.
- Kim, Y. C., & Jung, M. S.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1), 51-70.
- Kim, Y. S., Leventhal, B. L., Koh, Y. J., Hubbard, A., & Boyce, W. T. (2006). School bullying and youth violence: causes or consequences of psychopathologic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3(9), 1035-1041.
- Kim, Y. R. (2000). *Educational psychology*. Mooneumsa. Seoul.
- Kwon, S. D. (2004). Testing of the SEM of the peer network, character, bully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2), 543-564.
- Lee, E. J. (2003).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chool-system factors on experience of bullying offending: focusing on the bul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eoul.
- Lee, H. H. (2003). *Resilienc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roblem-drinking in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M. Y., Im, J. Y., Lee, S. D., & Oh, S. E. (2009). Perception of teachers on school viol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2), 174-185.
- Lee, S. H. & Choi, H.R. (2007).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heir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2), 321-337.
- Lim, S. K., & Lee H., S.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 Mandleco, B. L. & Peery, J. C. (2000).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resilience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3(3), 99-111. <http://dx.doi.org/10.1111/j.1744-6171.2000.tb00086.x>
- Masten, A. S. (2004). Regulatory processes, risk and resilience in adolescent developme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21, 310-319. <http://dx.doi.org/10.1196/annals.1308.036>
- Nansel, T. R., Craig, W., Overpeck, M. D., Saluja, G., & Ruan, W. J. (2004). Cross-national consis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behavior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8(8), 730-736. <http://dx.doi.org/10.1001/archpedi.158.8.730>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http://dx.doi.org/10.1111/j.1469-7610.1994.tb01229.x>
- Park, N. Y. & Koh J. H. (2005). A component analysis on the causes of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 An application of social relations model. *Adolescent Counselling Research*, 13(1), 43-54.
- Seo, M. J. (2008). Participation in bullying: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79-96.
- Yoo, G. S., Lee S. C., & Lee H. M. (2013).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participant roles of school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63-89.
- Yoon, Y. M. (2007). Analysis on bullying tendenci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2), 230-240.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in School Bullying*

Kim, Dong Hee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in school bully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14 victims among 825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asurements wer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on resilience, and the Childrearing Behavior Questionnaire, measurements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attitude of teachers toward bullying. Descriptiv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Resul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and resilience ($r=.355$, $p<.01$), warmth-acceptance parenting behavior ($r=.482$, $p<.01$), rejection-restriction parenting behavior ($r=-.213$, $p<.01$), and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r=.381$, $p<.01$).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of school adjustment with resilience ($\beta=0.247$, $p<.05$), warmth-acceptance parenting behavior ($\beta=0.302$, $p<.001$), and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beta=0.285$, $p<.01$). **Conclusion:** Comprehensive interventions designed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students, improve warmth-acceptance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may be helpful in promoting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Key words : Bullying, Victimization, Adjustment, Protective factor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R1A1A2006819)